

照明器具의 現代化는

가스燈

—電燈發明은 1880年 에디슨이—

燈火에 대한 史實은 옛날부터 이지만 電燈이란 器具가 發明됨으로써 燈火史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에디슨이 白熱電球의 特許를 얻은 것은 1880年이며 그는 다음 해 파리에서 열린 電氣博覽會에 이를 出品하여 世界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가 이 전등을 成功시킨 것은 필라멘트의 材料를 대나무로 만드는데 남보다 먼저 着眼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使用한 대나무는 日本 京都府 八幡이란 곳에서 生産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등 이전의 등불은 1550년에 이탈리아의 갈다노라는 數學者가 꺼름이 없는 램프를 발명한 것이 시초이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製藥業者인 쿠엔케가 글라스의 등피를 1756년에 만들었으며 1783년에는 스위스의 物理學者인 알간이 筒形의 芯을 만들었다. 이어서 1792년에는 매독이라는 英國의 技師가 가스燈을 발명함으로써 照明器具가 現代化하기에 이르렀다.

體溫計의 發明은 1654年에

—水銀計는 獨逸의 엘레가—

患者用 體溫計의 처음 發明은 1654년에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였으나 그 체온계는 氣體溫度計였으므로 正確하지 못했다.

이보다 40년이나 앞서 1595년에 갈릴레오·갈릴레이가 溫度計를 발명은 했으나 물론 체온계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1869년 獨逸의 엘레라는 사람이 水銀을 材料로 한 체온계를 발명하여 현재 보급되고 있는 수은체온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수은체온계의 特徵은 체온을 쟀 다음 그 高溫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原子核 中間子는 湯川이 發見

—1949年 노벨賞 受賞理論—

原子核의 性質에 中間子라는 粒子가 있다는 學說을 發表한 것은 日人 湯川秀樹이다.



發明小史

그는 1935年 原子核의 성질을 대하여 研究 끝에 쿼리夫人의 라디움發見 以來 원자핵에서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部分 가운데 중간자라는 입자가 있다는 學說을 내놓았다.

그의 主張인즉 원자핵의 陽子와 中性子 사이에 그보다 작은 중간자가 있어 그것이 오고 갈 때마다 양자와 중성자가 서로 재빠르게 變化한다는 說이다.

이 學說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37年, 美 物理學者 앤더슨이 實際로 중간자를 발견함으로써 湯川의 理論이 立證되었다.

따라서 1949년에는 이 功勞로

노벨物理學賞을 受賞하기에 이른 것이다.

地下足袋와 브리지스턴

타이어

—보선신발장수가 大企業이 되기까지—

日人の 신발은 나막신(개다: 下駄)과 地下足袋(지까다비)라하겠다. 지금도 地方으로 갈수록 흔히 볼수 있는 신발들이다. 그러나 이 신발이 日人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신들하게 들리겠지만 지까다비의 實用新案을 얻은 石橋正二郎이란 사람은 브리지스턴타이어 生産企業을 이룩한 動機가 되었다.

石橋는 九州의 商業高校를 卒業한 다비(보선신발)집의 아들이며 40~50年 前의 일본은 作業用 지까다비가 한창 流行이었다. 그러나 그때만해도 천으로 만든 지까다비이기 때문에 非經濟적이었음은 말할나위 없었다.

그래서 이같은 缺陷을 고쳐 보자는 構想이 그 兄인 德次郎으로부터 提案되었고 그 방법은 지까다비에 濕氣가 차지 않도록 신바닥에 고무를 대어 보자는 것이다.

이 구상에 合意한 그들은 實用신안으로 出願했고 權利를 얻은 다음에는 생산을 개시하자 農夫나 막일꾼들의 人氣가 대단하여 尙해에 50萬켤레가 팔렸다.

이만큼 팔리게 된 것은 實用신안권이란 防禦手段 때문에 다른 企業들이 손을 대지 못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12천만켤레가 팔린 덕분에 브리지스턴타이어란 大生産企業으로 成長한 것이다.

※ ※ ※